

## 민주연구원 '유통시장 구조변동과 유통업 혁신방향 : K-월마트 유통혁신을 위하여'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4월 9일(목), 『유통시장 구조변동과 유통업 혁신방향 : 'K-월마트' 유통혁신을 위하여』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
  -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“쿠팡 사태를 유통업 혁신의 계기로 대전환해야 한다”며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미국 유통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유통업 시장균형과 상생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  
- 이번 정책브리핑은 미국 유통업의 혁신의 역사와 월마트 혁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.
  - 미국 유통업은 동네 골목상권 가게에서 백화점과 체인스토어로 진화, 다시 월마트로 대표되는 대형마트로, 다시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시장 플랫폼으로 진화
  - 월마트는 온라인 시장 플랫폼에 의해 파괴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혁신을 단행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한 옴니채널(Omnichannel) 플랫폼으로 대전환
  
- 유통시장의 구조변동을 분석하고 K-유통업의 혁신방향을 제시했다.
  - ‘중소유통 vs 대형유통’에서 ‘온라인 vs 오프라인’으로 경쟁구도를 전환, 이제 ‘온라인·오프라인 리테일 융합’ 단계
  - 대형마트 등 유통 경쟁자들이 ‘초근접 물류·픽업·반품·체험 허브’로 전환, 물리 인프라와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된 통합 리테일 네트워크 간 경쟁 활성화
  - 쿠팡을 비싸고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의 대항혁신을 촉진하여 전반적으로 소비자 가치를 확대하고 시장균형을 회복하는 혁신경쟁의 제도적 개방 필요